

영화를 읽는 세가지 시선



'스틸 앨리스'

'우리들은 정의파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관객수 1000만 영화가 심심찮게 나오는 시대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수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단순 감상이 아닌 영화 읽는 법을 알려주는 자리를 소개한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무소영' = 조대영 영화감독이 진행하는 두개의 소설영화동아리가 2017년 하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두 동아리는 원작소설을 2주간에 걸쳐 먼저 읽고 모임 당일에 영화를 감상한 후 소설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회원들이 선정한 소설과 영화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7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격주 수요일 오후 7시 모임을 갖는다.

7월5일 하반기 첫 자리는 류혜운 회원이 선정한 리사 제노바의 소설 '스틸 앨리스'와 리처드 글랫저가 메가폰을 잡은 동명의 영화(2014년 작)를 살펴본다. 2015년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주인공을 맡은 줄리언 무어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던 작품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 당당하게 병에 맞서는 과정을 그렸다.

이어 7월19일 기즈오 이시구로 원작의 '남아 있는 나날'(감독 제임스 아이보리·

1. 소설영화동아리, 원작소설 먼저 읽고 감상·토론
2. 광주여성영화제, 페미니즘 주제 깊이있게 살펴보기
3. 광주극장, 각계 전문가들 강의 듣고 시네토크

1993년)을 함께 본다. 2차세계대전을 겪은 영국인 주인공(안소니 홉킨스)이 20여년이 흐른 후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당시 영국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담았다.

또 영국과 독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조조 모에스 원작의 '미 비보 유'(10월 11일)를 비롯해 토마스 하디의 원작을 영화로 만든 '테스'와 어린 소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젊은 사자들' 등 고전도 눈에 띈다. 자세한 일정 홈페이지 참조(cafe.naver.com/20reading).

무등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무소영'(7월 2일~12월18일 첫째·셋째 월요일 오후 2~5시)은 올 하반기 여성주의 작품부터 판타지, 호러, 서부극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룬다.

7월2일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피터 브룩 감독이 연출한 '모데라토 칸타빌레'를 시작으로 '쇼생크 탈출'(원작 원한 회광), '천녀유혼', '3 : 10 유미', '마이

너티 리포트' 등을 함께 읽고 감상한다. 현재 두 동아리 모두 하반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4660-5792.

◇'페미니즘 영화인문학산책' = 광주여성영화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여성을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깊이있는 시선으로 페미니즘을 살펴보는 자리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동구 충장로 옛 학생회관 자리)에서 30일(오후 7시)·7월1일(오후 2시) 두차례 진행된다.

준비한 영화는 '우리들은 정의파다'(감독 이혜란·30일)와 '이반걸연'(제작 여성영상집단 '움'·'이반걸연 두번째 이야기'(감독 이영) 등 다뤄 3편이다. 각각 영화 상영 후 감독이 참여하는 시네토크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들은 정의파다'는 30년 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혹사, 성희롱에 저항하는 과정을 그렸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인터뷰로 들려준다.

'이반걸연' 시리즈는 10대 동성애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냉랭한 사회 시선을 보여준다. 편견과 비난, 혐오를 넘어 레즈비언도 인정받는 사회를 꿈꾼다. cafe.daum.net/wffig. 문의 062-515-6560.

◇광주극장 '2017 시네마 가이드 맵' = 철학·예술·문학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화 애호인들의 안목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오는 10월까지 매월 한차례 관객 7인이 추천한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다. 지난 4월부터 '나, 다니엘 블레이크'(유재홍 전남대 불분과 교수), '아가씨'(신형철 문학평론가)에 이어 오는 15일(오후 7시)에는 김형중 문학평론가가 추천한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를 상영하고 영화 이야기를 나눈다. 또 '환상의 빛'(7월20일·유영철 광주시네마테크 사무총장), '유스'(8월24일·조대영 영화인), '피나 바우쉬의 댄스 드림즈'(9월21일·나희덕 시인), '45년 후'(10월19일·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등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6000원, 실버 5000원. CMS 회원 4000원. 문의 062-224-585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뮤지컬 '그녀들을 기억하며'

아트컴퍼니 원,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서 15~17일 공연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관장 강병연)은 2017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극단 아트컴퍼니 원(대표 원광연)과 함께 올 한해 동안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금 공연단체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공 공연장에게는 가동률 향상과 활성화에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15~17일(평일 오후 2시, 주말 오후 2시·7시 30분) 수련관 상상마루 공연장에서 우수 레퍼토리 연극 두 번째 작품 '뮤지컬-그녀들을 기억하며'를 선보인다.

원광연 대표가 극본과 연출을 맡은 '그녀들을 기억하며'는 위안부를 소재로 한 연극 작품 '남자군'을 뮤지컬로 재탄생 시켰다.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들이 피해자 할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겪는 아픔을 통해 그녀들의 일이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도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11월에는 쉽게 행해지고 사라지는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창작 초연작품 '더 비기닝'이 계획돼 있으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작품으로 '배비장 전'을 공연한다. 또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공연 만들기'도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www.bukgyuyouth.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268-23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남문화재연구소 내일 학술대회

영산강 고대 마한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문화재연구소는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학술대회를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관광재단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마한제국의 탄생과 국제적 활동에 대해 공동 주제발표를 한다.

1부 권오영 서울대 교수와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부 '마한 초현기의 물질문화 탐구', 3부 '마한제국의 국제관계 역동성'이 이어진다. 다카타 칸타 일본 역사민속박물관 교수, 정인성 영남대 교수, 이동희 인제대 교수, 이범기 전남문화재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4부 종합토론에서는 임영진 전남대 단과 대학문화재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마한제국의 탄생과 국제적 활동에 대해 공동 주제발표를 한다.

1부 권오영 서울대 교수와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전남여교 '보도지침' 제 28회 광주학생연극제 대상

전국청소년연극제 광주 대표 참가

전남여교(교장 김덕중)의 '보도지침'이 최근 유·스퀘어문화관 통산아트홀에서 막을 내린 제 28회 광주학생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보도지침'은 제 5공화국 시절인 1986년 전두환 정권 당시 김주연 한국일보 기자가

월간 '말' 지에 '보도지침'을 폭로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 한 작품이다. 전남여교는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와 유·스퀘어문화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연극제에는 장덕고, 동신여고, 전대사대부고, 운남고, 성덕고, 수완고, 전남여고, 광주일고, 살레

시오고, 금호고 등 총 10개 고등학교가 참여했다.

한편 예술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한국연극협회와 2013년 '청소년 연극제'에 관한 후원협약을 맺은 유·스퀘어문화관은 지역 학생들이 광주학생연극제와 전국청소년연극제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밖의 수상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수상 = 남자군(동신여고) ▲장려상

= 아름, 다운(성덕고) 길(광주제일고)

▲연기대상 = 유혜수(동신여고) ▲지도교사상 = 이지훈(수완고) ▲최우수연기상 = 장민선(동신여고) 정수지(전남여고) ▲우수연기상 = 김민재(장덕고) 유금빈(동신여고) 한은빈(전대사대부고) 정혜원(운남고) 김예은(성덕고) 이창현(수완고) 강유진(전남여고) 이승환(광주제일고) 한정현(살레시오고) 김선우(금호고).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